

과제문②

주먹이의 모험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키와 몸집이 아주 작아 ‘주먹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주먹이는 낚시를 하러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침이 되자, 낚시를 하는 아버지 곁에서 심심해하던 주먹이는 멀리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 멀리 갔습니다.

이때, 먹이를 찾던 술개 한 마리가 주먹이를 낚아채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독수리가 먹이를 빼앗으려고 술개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술개와 독수리는 옥신각신하다가 그만 주먹이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주먹이는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먹이는 다른 물고기들 사이에서 헤엄을 쳤습니다.

한낮이 되었을 때, 주먹이를 본 잉어 한 마리가 주먹이 쪽으로 헤엄쳐 왔습니다. 잉어는 주먹이를 먹이로 생각하고 냉큼 삼켜 버렸습니다. 주먹이는 잉어 배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였지만 너무 좁아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먹이는 잉어 배 속에서 아버지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저녁 무렵, 주먹이를 삼킨 잉어는 주먹이 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는 강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얼른 잉어를 낚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잉어 배 속에서 주먹이를 꺼냈습니다. 두번 다시 아버지를 못 만날 뻔 했던 주먹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課題文②

ゲンコツの冒険

昔、ある村にある家族が住んでいました。その家には、背丈と体つきがとても小さい「ゲンコツ」と呼ばれる子どもがいました。

ある日の早朝、ゲンコツは釣りをしに行くお父さんについて道に出ていきました。朝になると、釣りをするお父さんのそばで退屈していたゲンコツは、遠くに行つてはいけないというお父さんの言いつけを聞かず、ずっと遠くまで行きました。

その時、餌を探していたトンビ一羽がゲンコツをさらって、空高く上がっていきました。この姿を見たワシが餌を奪おうとトンビに飛びつきました。トンビとワシがもめている間にうっかりゲンコツを放してしまいました。その拍子にゲンコツは川に落ちてしまいました。ゲンコツは、他の魚たちの間で泳ぎました。

真昼になったとき、ゲンコツを見た鯉が一匹、ゲンコツに向かって泳いできました。鯉はゲンコツを餌だと思ってパクリと飲み込んでしまいました。ゲンコツは鯉のお腹の中から出ていこうとしましたが、狭すぎて身動き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だからゲンコツは鯉のお腹の中でお父さんを大声で呼びました。

夕方頃になり、ゲンコツを飲み込んだ鯉は、ゲンコツのお父さんが釣りをしている川沿いに来ていました。お父さんはゲンコツが呼ぶ声を聞いてサッと鯉を釣りあげました。そして鯉のお腹の中からゲンコツを取り出しました。二度とお父さんに会えないところだったゲンコツは、お父さんの胸に抱かれて喜びの涙を流しました。